

사회

일곱번째 아이 출산 장성 삼계면 이기철·장미순 부부 화제



광주 애덴병원에서 일곱 번째 아이를 낳은 장미순(41·앞줄 가운데)씨가 24일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이를 안고 기족들과 병원 직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육아 비결요? 사랑이죠”

“육아 비결요? ‘사랑’으로 감싸 안는 거죠. 아이들이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40대 산모가 일곱 번째 아이를 낳아 화제다. 특히 젊은층의 이동으로 고령화가 심해 아이율을 소리를 줄처럼 듣기 어려운 농촌에 살면서 다복함을 과시해 주변의 부러움은 더욱 크다.

주인공은 장성군 삼계면에 사는 이기철(39)·장미순(여·41)씨 부부. 장씨는 최근 광주 애덴병원(원장 허정)에서 2.72kg의 건강한 남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했다. 일곱째까지 모두 애덴병원에서 낳았다.

24일 오전 병원에서 만난 장씨는 태어난 지 일주일 된 하경이를 보면서 ‘하늘이 주신 축복’이라며 활짝 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장씨와 하경이를 번갈아 바라보던 남편은 이내 장씨의 손을 꼭 잡았다.

이날 막내동생을 보기 위해 여

서로 숙제 도와주고

청소·집안일도 함께

“여덟째도 감사하죠”

애덴병원 전액 지원

섯명의 누나·형이 모두 모였다. 종학교에 다니는 하란(16)양과 하빈(14)군, 초등학생 하현(10)군과 하경(9)양도 명실로 찾아와 동생의 탄생을 축하했다. 하성(6)군과 하영(3)양도 인형같은 동생이 신기한 듯 눈길을 떼지 못했다.

장래희망이 국어교사인 말이 하란양은 “처음엔 동생이 또 생긴다는 생각에 기분이 이상했는데, 하경이를 알아보니 너무 사랑스러웠다”라며 “엄마를 도와서 동생을 잘 돌보겠다”고 당차게 말했다.

이들 가족은 마을에서 ‘유명인

사’들이다.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에서 ‘아이 많은 집’을 둘으면 모두 알고 있을 정도. 저녁이면 유치원·초·중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모여 앉아 서로 숙제를 도와주고, 남편도 청소·설거지 등 집안일을 함께 해 이들 가족은 언제나 사랑이 넘친다.

(주)금호 HT에 다니는 남편 이씨와 지난 1995년 결혼한 장씨는 일곱 명의 아이를 낳은 비결은 ‘남편의 사랑’이라고 수줍게 말했다.

외동아들로 자란 남편이 많은

아이를 원했고, 집안에서 틀리는 아이들 소리가 너무 좋아 일곱 번째 아이까지 낳았다는 것.

이들 부부에게 여덟째를 넘기시

문자 “계획은 없지만 생긴다면 감

사하는 마음으로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덴병원 측은 장씨의 일곱 번

째 출산을 축하하며 기저귀, 옷 등

육아용품과 출산비 전액을 지원했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24일 광주와 전남·북 지역은 고기압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 한눈에

전남여고 역사관 오늘 개관

전남여고에 일제 강점기 학생 독립운동의 자취를 볼 수 있는 역사관이 문을 연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여고 역사관이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표진 시교육청 부교육감, 학교 및 동창회 관계자 등이 참석, 오는 25일 개관식을 갖는다.

개관식에는 1930년 시험기간 중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험을 거부하자는 이른바 학생독립운동 백지동맹 주도자인 최순덕(101·1회 졸업생) 여사가 훈체 어를 타고 참석할 예정이다.

역사관은 교육과학기술부 5억 원, 광주시와 시교육청 각 1억 5000만원, 전남여고 동창회 2억 원 등 총 10억원이 소요돼 학교 내 지상 2층(연면적 870㎡) 건물에 들어선다. 역사관에는 학생독립운동 모형 조형물과 영상자료 등이 전시된다.

지난 1928년 개교한 전남여고 본관 건물은 학생독립운동 당시 교사(校舍)로 유일하게 남아있으며, 지난 1999년 4월 광주시 지정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됐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방과후 강사 채용 특혜·명절 떡값

초등교장 정직 3개월 징징계

광주시교육청은 24일 방과후 강사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명절 때 교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남구 모 초등학교 A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교장은 지난 3월 음악 과목 방과후 강사 채용과정에서 자체 기준과 다른 가산점을 부여해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A 교장은 또 지난 2009년부터 명절 때 방과 후 강사와 일반 교사들로부터 인사비 명복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서 방과후 강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동구 모 초교 B 교장은 감봉 1개월, 금품수수를 부인하는 북구 모 초교 C교장은 검찰에 고발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초여름 날씨

나주 어제 30.3도

의 영향을 받아 나주 30.3도, 화순 29.7도, 광주 29.3도, 전주 29.5도, 함평 29.3도 등 올들어 최고기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6일까지 광주와 전남(남해안 제외)·북 지역 예상강수량은 5~2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20~50mm. 특히 26일에는 남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고 기상청 관계자는 당부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낮엔 덥고 밤엔 비오고

차 흐려져 밤부터 비(강수확률 60%)가 내리겠다.

광주	밤한때비	15/29°C
목포	밤한때비	15/25°C
여수	밤한때비	15/21°C
나주	밤한때비	13/29°C
완도	밤한때비	14/24°C
구례	밤한때비	11/27°C
해남	밤한때비	14/24°C
장흥	밤한때비	13/24°C
순천	밤한때비	14/25°C
영광	밤한때비	14/27°C
전주	밤한때비	14/24°C
전주	구름많음	15/29°C
군산	구름많음	15/28°C
남원	흐림	11/27°C
혹산도	흐림	13/19°C

〈오전〉 비다	풍향	파고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꽃기루지수
서해 남부 일비다	북동~동	0.5~1.0m	0~100	0~100	0~100
남해 서부 일비다	북동~동	1.0~2.0m	1~100	1~100	1~100
남해 서부 일비다	북동~동	1.5~2.5m	2~100	2~100	2~100

〈오후〉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비다	북동~동	1.0~2.0m	00:38	00:38
남해 서부 일비다	북동~동	1.5~2.5m	20:21	13:45
남해 서부 일비다	북동~동	2.0~4.0m	02:44	09:2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31(화)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날씨

최저/최고 17/22 15/25 15/27 16/27 16/28 17/27

국립공원의 야생화

쓱의 양분 먹고 사는 더부살이 식물

〈24〉 백양 더부살이



백양 더부살이는 열당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백양자 부근에서 극히 드물게 자라는 열당과 기생식물로 쑥 뿌리에 자신의 뿌리를 내려 쓱의 양분을 빼앗아먹고 사는 더부살이 식물이다.

일제 강점기인 1928년 일본 식물학자 다케노신 나카이(中井猛之進) 박사에 의해 처음 발견된 후 그 동안 실제가 베일에 싸여 있었으나, 70여 년이 지난 2000년 필자가 재발견해 다시 모습을 드러낸 식물이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괴장)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서울 종로점 OPEN

서울 종로점을 4월5일 개점하였습니다!

[지방에서 보청기 사용중]

불편사항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스마트한

바로 지금! 세상이 열린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ALL - IN - ONE SERVICE (온인원서비스)

온인원 서비스를 통하여 모바일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하고 또한 번호정보 어플을 통하여 번호정보 검색이 가능한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 고객의 배출을 극대화하는 한국전화번호부의 새로운 온, 오프라인 통합서비스입니다.

온인원 서비스 상담 문의 : (062) 514-1144

한국전화번호부주식회사
KOREA TELEPHONE DIRECTORY CO., LTD